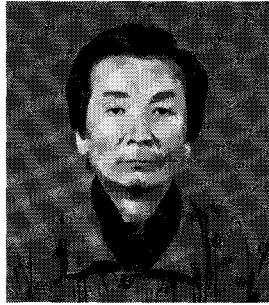


자가수정으로 수태을 향상



박근용

이천남부낙농영농조합 부회장

우리나라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금세기초 이래 전국적으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40℃를 육박하는 더위로 가축이 떼 죽음을 하는가 하면 사료작물이 말라 가는 등 우리 낙농인들을 그 어느때 보다도 애태우게 한 무서웠던 여름도 뒤로 하고 이제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살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하지만 지난 여름은 25% 이상의 유량 감소가 있었고 폐사, 발정이 안와서 번식간격이 넓혀졌는가 하면 설령 발정시와 수정을 시킨다 해도 살인적인 더위는 수태도 거부하곤 했다.

관광차라고 여행이 아닌 인공수정 교육을

낙농가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던 수정문제. 재발이 오고 삼발이 오고 급기야는 수태가 안돼 도태우도 일년이면 2~3두가 발생하곤 했었다. 수정결과가 나빠 수정사를 책망해 보면 수정사는 축주가 사양관

리를 잘못해 그랬노라고 반박하길 되풀이 하며 지내온 것이 우리 낙농인들의 현실이다. 그러던 중 우리 이천 남부 낙우회(울면낙우회) 회원들은 지난 '92년 가을 유우개량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단기 수정교육 소식을 접했다. 부부 일손에만 의존해 목장을 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고양시 원당까지 9일간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끝에 관광차를 대절해 출퇴근 형식의 교육을 받기로 하고 40여 회원이 수정교육에 참석을 하게됐다. 교육을 수료하니 수정사들의 성역인줄로만 알았던 인공수정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심감에 부풀어 수정에 필요한 콘테이너등 기구를 준비해 자가수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낙우회원이 단체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우리 낙우회가 처음이라는 사업소측 인공수정 담당 교관들의 얘기다.

이기는자는 그만 두는 법이 없고 그만 두는자가 이기는 법은 없다.

‘가다가 중지 끝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했던가? 처음엔 모든게 어설피고 부자연스러워 애를 먹지만 반복하면 숙달이 되어 옛날 보고 웃는다 하지 않았던가! 교육 수료후 바로 수정기구를 구입하고 개인 또는 삼삼오오 콘테이너를 구입 그야 말로 자가 인공수정을 시작했다. 전과 달라진 것은 정액을 골라 쓰는 것이다. 근친은 물론 피해야 하고 체형, 유지율, 유량을 개량하는 정액등 자기 목장 소에 맞는 정액을 골라 쓰는게 여러 수확중 하나였다.

그러나 발정이 온 소를 발견하면,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한마디 거들어 줄 교관도 없고 실전이다 생각하니 더욱 긴장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게다.

직장에 손을 넣어 배변을 시키고 주입기를 넣어 보니 허허 벌판에 뭐가 뭔지 헤매이길 한동안 겨우 수정을 끝내곤 생각해 본다.

역시 수정은 전문가인 수정사가 해야 돼 하며 마음이 약해지길 수 차례. 그러나 그만 두는 자가 이기는 법은 없는 것. 직업으로 하는 수정사도 처음은 그랬을 것, 중단치 말고 계속 할때만이 자신감을 얻고 수태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툰숨씨로 시킨 수정이지만 감정이 나오고 분만을 했을때의 기쁨이란 이루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은 숙달이 되어 4~5분이면 족한것을 처음엔 무려 40분이 소요되는 서툰숨씨였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정 발견, 정확한 수정시간, 정확한 시술,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본다. 우리 회원들은 정확한 수정시간 감지가 아직은 미숙하여 2회 수정으로 초발에 90%를 전후하는 높은 수태율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일이 자만은 금물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있다

UR 타결이후 경쟁력 제고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있다. 낙농선진국 송아지값이 30만원대, 우리는 70만원대. 내년 이후 수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소값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송아지 1두 생산



교육 수료후 바로 수정기구를 구입하고 개인 또는 삼삼오오 콘테이너를 구입 그야 말로 자가 인공수정을 시작했다. 전과 달라진 것은 정액을 골라 쓰는 것이다. 근친은 물론 피해야 하고 체형, 유지율, 유량을 개량하는 정액등 자기 목장 소에 맞는 정액을 골라 쓰는게 여러 수확중 하나였다.



을 하기 위해 평균 2.2회, 수정료는 4~7만원, 그의 자궁세척, 번식장해 치료비를 포함하면 수정료가 송아지값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뻔한 일이다.

또 모 유업체 산출로는 수정이 한주기 늦어질때 송아지 성장 유유생산 수정료등을 계산해 보면 137,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정료 내지 번식 간격이 넓어질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자가수정으로 우리 회원들은 극복해 가며 멀지 않아 8~9,000kg 유유생산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2세들이 우유를 많이 먹는 일본 아이들의 키와 체중을 쫓아 갔다고 한다. 이 한가지도 퇴락별 마다 않고 풀을 베어 생산한 우리 낙농인들의 긍지일게다.

송아지 생산원가를 과감히 절감함과 아울러 수량정액 사용으로 우량후보축이 생산이 되므로 얼마후엔 낙농선진국이상의 수준에 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유우개량사업소 강대조교관을 비롯한 인공수정 교육팀에게 재삼 감사드리며 또 낙농육우협회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이만 미흡한 글을 마칠까 한다.